



김만섭  
사) 한국오리협회장

# 오리산업은 이제 5대 축종으로 성장하였다.

2003년도의 조류인플루엔자 와 2004년 겨울의 폭설에 의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굳은 신념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. 오직 '하면 된다'는 신념으로 재기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. 그리하여 현재는 오리 사육농가수가 전년보다 5%가 증가한 8천9백호이며, 사육마리수는 8백40만 마리로 증가하였다.

축산업의 생산액은 10조 원 정도인데 오리산물의 생산액은 5천억 원으로서, 축산물생산액의 5%를 점유하고 있다. 10년 전보다 4.5배나 증가하였으며, 축산물 생산액 중에서는 오리생산액의 성장률이 1위이며, 2위는 2.7배 증가한 양돈산업이다.

오리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였으며 상업용 종오리를 품질 좋고 경제

### 축산물 생산액

(단위 : 원)

| 품 목     | 가중치   | 1994              | 2004               | 2004<br>구성비(%) | 2004/1994<br>성장율(%)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한육우     | 56.0  | 1,472,495,621,279 | 2,893,723,009,088  | 26.7           | 196.5               |
| 젖소(우유)  | 45.8  | 963,468,457,200   | 1,549,830,762,750  | 14.3           | 160.9               |
| 돼지      | 81.1  | 1,358,508,055,842 | 3,666,775,704,200  | 33.8           | 269.9               |
| 산양      | 1.5   | 62,892,970,200    | 57,827,500,000     | 0.5            | 91.9                |
| 사슴(녹용)  | 0.8   | 29,269,776,651    | 6,309,500,000      | 0.3            | 124.1               |
| 토끼      | 0.5   | 7,254,320,000     | 15,877,470,000     | 0.1            | 218.9               |
| 닭(계란)   | 46.1  | 1,220,019,080,000 | 1,935,863,350,000  | 17.9           | 158.7               |
| 오리(오리알) | 14.5  | 119,539,592,000   | 539,602,850,000    | 5.0            | 451.4               |
| 메추리알    | 0.5   | 7,634,290,000     | 17,898,340,000     | 0.2            | 234.4               |
| 벌꿀      | 4.0   | 61,239,078,750    | 126,178,362,000    | 1.2            | 206.0               |
| 합 계     | 250.8 | 5,305,432,646,922 | 10,839,886,848,038 | 100.2          | 204.3               |

자료 : 농림통계연보, 농림부, 2005년도

능력이 우수한 PS 종오리로 대체하였으며, 질병예방은 물론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

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오리생산을 위한 연구로 유향오리, 셀덕오리, 삼백초오리 등의 기능성오리를 개발하였고, 오리진흙구이, 오리훈제, 오리햄, 오리로스, 오리소세지 등 오리제품의 다양화와 요리법의 개발홍보로 새로운 수요 창출에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.

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웰빙(Well-Being)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기능성오리와 제품개발과 함께 새로운 요리법을 계속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.

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(D/B사업)사업도 실시해야 한다. 모든 시책은 통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. 따라서 튼튼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/B사업을 실시해야 한다.

또한 오는 9월 이후에는 비수기로서 오리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소비홍보를 위한 자금이 없는 형편으로 가금수급안정기금의 지원을 꼭 필요한 시점이다.

정부는 긍정적인 자세로서 내년이면 바닥나는, 아니 폐지되는 가금수급안정기금에 버금가는 정책자금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. 자조금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만이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.